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변화 및 영향요인 탐색: 잠재전이분석과 의사결정나무분석 적용*

박소영** · 정혜원***

초 록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취업선호도 잠재계층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매년 추적·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I의 7차년도와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Collins & Lanza, 2010)과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Quinlan, 1986)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분석 결과 7차년도와 9차년도 취업선호도에서 각각 3개의 이질적인 집단(이상선호형, 환경중시형, 취업탐색형)을 확인하였다. 둘째,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의 전이 확률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7차년도 잠재계층이 대부분 9차년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차년도에 '이상선호형'에 속한 후기 청소년의 경우 9차년도에 '환경중시형'으로 변화될 확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9차년도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에 수능 외국어영역 등급, 성별,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주요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 시기의 취업선호도의 이질적인 잠재계층을 확인하고 잠재계층의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영향요인만을 한정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변인을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취업선호도, 의사결정나무, 잠재전이분석, 후기 청소년

* 이 논문은 제 1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제 1저자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I. 서 론

취업난과 구직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은 후기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원섭, 2004).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인 후기 청소년들은 취업에 대한 조건이나 기준, 선호 등을 확립하거나 수정하여 취업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후기 청소년의 취업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시점에서만 취업선호도의 잠재계층을 확인하거나, 예측요인을 검증하거나, 취업선호도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선호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박연복, 2017; 신명호, 이영리, 홍세희, 2016). 그러나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는 취업에 가까워질수록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취업선호도의 종단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취업선호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패턴으로 변화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 중학교 3학년 패널의 7차년도,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의 종단적 변화 양상 혹은 안정성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고자 한다.

시간에 따라 잠재계층 분류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잠재전이분석은 (손원숙, 2013), 잠재계층의 전이 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ollins & Lanza, 2010). 취업선호도가 처음 측정되었던 7차년도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이 22세가 된 해이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09년은 이 학생들이 24세가 되어 취업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에 취업선호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취업선호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취업선호도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전통적인 모수 통계 분석방법은 영향요인 간 존재하는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으며, 등분산 가정, 정상성 등 통계적인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이창식, 정미나, 김윤정, 2012). 또한 취업선호도에 대한 특정한 영향요인만을 선택적으로 투입하거나 목적에 의해 자료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

력 및 관련성 등을 다각적으로 탐색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다(이혜주, 정의현, 2014).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데이터마이닝기법(Data Mining)의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 Quinlan, 1986)을 적용하고자 한다. 데이터마이닝기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택적으로 영향요인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통계적인 가정이나 전제 없이 자료 속에서 새로운 예측 및 설명모형을 만드는 비모수적 기법이라 할 수 있다(임희진, 유제민, 2007). 이 중 의사결정나무분석은 통계적 가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최적의 모형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가장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는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구분되며,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잠재계층 전이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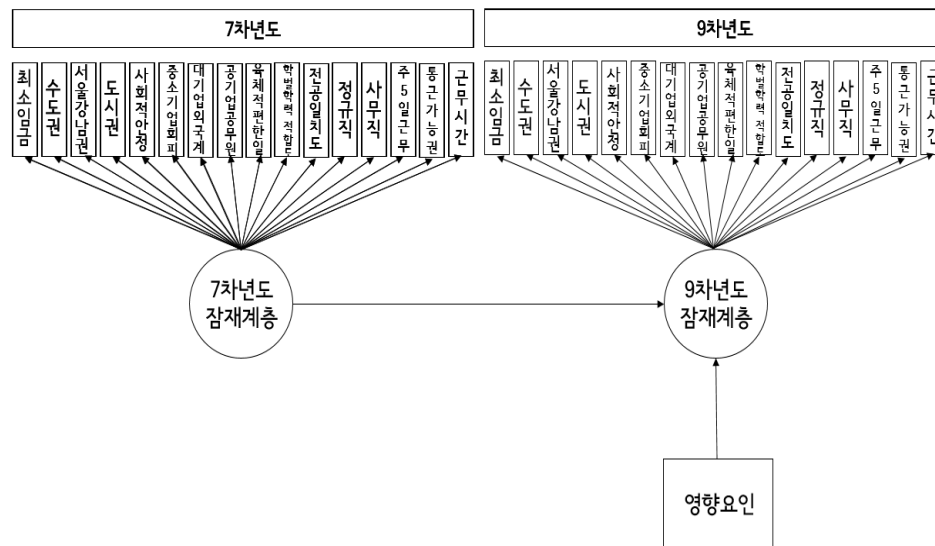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II. 선행연구 검토

1. 취업선호도

취업선호도는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어떤 특성의 직업을 선호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로(유홍준 외, 2016), 취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며(봉초운, 정윤희, 2017), 취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임옥진, 2012). 이러한 취업선호도는 개인의 성향, 환경 등에 의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취업선호도는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Poole & Pogrebin, 1988).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연구에 비해 비교적 미비하였으며, 주로 최소임금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최율, 이왕원, 2015). 반면 취업선호도와 관련된 최근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외에 근무조건, 근무환경, 근무지역, 직장번호 등 취업하고 싶은 직장에 대한 구체적인 선호를 포함하고 있다(김혜진, 오호영, 2016; 박연복, 2017; 봉초운, 정윤희, 2017; 유홍준 외, 2016). 경제적인 부분에서 최소임금을 통해 취업선호도를 확인하는 것은 후기 청소년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없다. 취업선호도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취업선호도는 구체적인 취업 전략 수립 및 선택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최율, 이왕원, 2015). 즉, 직장 소재지나 직장의 종류, 근무환경, 근무내용 등 어떠한 직장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후기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미래 기업에 취업을 할 후기 청소년들이 어떠한 특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선호도는 구인과 구직,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다(오계택, 박은선, 2012; Heckert et al., 2002).

김혜진과 오호영(2016)은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조사한 취업선호도의 연도별(2010-2014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2010년에 비해 2014년의 경우 취업선호도 항목 중 사무직에 대한 선호, 통근 가능권, 근무시간, 주5일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수도권과 도시권 직장에 대한 취업선호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업선호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취업에 직접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취업

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직실패 경험을 겪은 후기 청소년의 경우 이상적인 취업선호보다는 현실적으로 취업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취업선호도가 변화할 수 있다.

2. 취업선호도 영향요인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개인 요인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 박연복(2017)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성별, 성격 BIG 5요인 중 성실성, 개방성, 수능 등급과 사회경제적 배경인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보이지 않는 편이며, 성격 유형 중 성실성이 높으면 사회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높거나 수능 등급 평균(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평균)이 높은 후기 청소년일 경우 취업 시 취업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지 않는 집단보다는 사회적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사회적 인정, 중소기업 회피, 학벌/학력 수준, 정규직에 대한 선호 높음)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홍준 외(2016)는 취업선호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성별과 학력은 근무조건, 근무지역 선호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별에 관한 연구가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성별에 따라 취업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임금, 승진, 사회적 인정 등 외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비해(이석재, 1989), 여학생은 임금, 승진 등 외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나 근로환경, 같이 일하는 직원, 복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ckert et al., 2002). 또한 가사나 육아 등에 대한 부담이 높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근로시간, 주 5일 근무, 통근 가능권 등이 취업의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최소임금, 정규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혜진, 오호영, 2016). 오계택과 박은선(2012)의 연구에서는 취업선호도를 최소임금, 근무조건, 직장유형, 근무지역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성별, 거주지역, 근무형태, 직장규모, 평균 근무시간 등의 요인이 취업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대학이나 학과 만족도 등 대학에서의 경험과 만족도도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 청소년들의 내적인 성장과 현실을 자각하는 경험을 대학교에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오계택, 박은선, 2012). 또한 박연복(2017)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수능 등급 등과 같은 학업성취수준은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매향, 박은혜와 유성경(2006)의 연구에서도 학업우수 학생이 그렇지 않은 일반학생에 비해 취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성취수준에 따라 취업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기 청소년의 학업성취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수능 등급과 학점을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제한적인 변인 외에 후기 청소년들의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더구나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잠재계층 변화양상과 취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을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 은 청소년의 교육경험, 진로 및 진학,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고자 2004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패널의 2010년에 조사된 7차년도 자료와 2012년에 조사된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따른 잠재계층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5차년도(2008), 7차년도(2010), 9차년도(2012)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1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위한 변수는 표 1에 나타난 연도에서 조사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표 1

변인 설명 및 기초통계

변수	측정	n	평균(표준편차)		
			5차	7차	9차
취업 선호도	월급	7차:1,381 9차:1,381		.40(.49)	.42(.49)
	수도권	7차:1,377 9차:1,376		.35(.48)	.34(.47)
	서울강남권	7차:1,379 9차:1,376		.05(.21)	.04(.20)
	도시권	7차:1,378 9차:1,376		.44(.50)	.45(.50)
	사회적 인정	7차:1,376 9차:1,375		.36(.48)	.37(.48)
	중소기업 회피	7차:1,377 9차:1,373		.16(.37)	.19(.39)
	대기업/외국계	7차:1,378 9차:1,372		.10(.31)	.11(.32)
	공기업/공무원	7차:1,377 9차:1,374		.10(.30)	.09(.28)
	육체적노동 회피	7차:1,380 9차:1,374		.46(.50)	.48(.50)
	학벌·학력 적합도	7차:1,379 9차:1,374		.52(.50)	.53(.50)
	전공분야 일치	7차:1,379 9차:1,375		.39(.49)	.38(.48)
	정규직	7차:1,379 9차:1,377		.65(.48)	.66(.47)
	사무직	7차:1,378 9차:1,374		.26(.44)	.29(.46)
	주 5일 근무	7차:1,380 9차:1,376		.44(.50)	.50(.50)
	통근가능권	7차:1,378 9차:1,375		.62(.48)	.68(.47)
	근무시간	7차:1,365 9차:1,375		.66(.47)	.69(.46)
	성별	남자=1, 여자=0	1,381		

변수		측정	n	평균(표준편차)		
				5차	7차	9차
거주 지역	특별시	더미코딩 (참조집단 : 읍면지역)	1,381	.25(.43)		
	광역시			.29(.45)		
	시			.35(.48)		
동거인 여부		비동거=0, 동거=1	1,381	.18(.38)		
아버지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의	892	1.51(.39)		
어머니 월평균 소득		로그함수 값	521	1.18(.35)		
외모로 인한 차별		없다(아니오)=0 있다(예)=1	1,380	.12(.32)		
자격증 여부			1,379	.11(.32)		
해외연수경험			1,379	.04(.19)		
학자금 대출			115	.38(.49)		
일자리 경험 여부			1,380	.23(.42)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자리 여부			323	.84(.37)		
동아리 활동 여부			1,381	.21(.41)		
미래직업 결정 여부			1,378	.53(.50)		
재학 중 현장 실습	의무	더미코딩 (참조집단 : 경험 없음)	1,381	.50(.50)		
	자발적			.13(.34)		
성격 BIG5	외향성	각 6문항의 평균	1,380	1.73(.45)		
	정서불안정성	4점척도	1,380	1.37(.53)		
	친화성	전혀 그렇지 않다=0 그렇지 않은 편이다=1	1,380	1.81(.39)		
	성실성	그런편이다=2 매우그렇다=3	1,380	1.62(.43)		
	개방성		1,378	1.64(.43)		
SNS 사용 여부		아니오=0, 예=1	1,381	.65(.48)		
구직 실패 경험 여부			424	.29(.45)		
자신에 대한 질문(6문항)		각 문항의 평균	1,381	3.64(.64)		
수업태도(5문항)		5점 척도	1,054	3.64(.60)		
대학 시설과 자원(5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1,053	3.41(.71)		
대학생활(10문항)		보통이다=3	1,053	3.28(.59)		

변수	측정	n	평균(표준편차)		
			5차	7차	9차
강의 및 수업만족도(6문항)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1,054		3.68(.59)	
학점	학점 변환점수 값 (학점평점/졸업평점)*100	781	77.29(15.06)		
EBS특강 시청 여부	아니오=0, 예=1	485	.73(.45)		
입학 전형	일반전형		.69(.46)		
	독자전형	더미코딩 (참조집단 : 특별전형)	.01(.09)		
	정원 외		.01(.10)		
수시정시입학 여부	수시=1, 정시=0	973	.58(.49)		
선택 대학 만족도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983	3.49(.89)		
선택 전공 만족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982	3.66(.87)		
고3시절 사교육 경험		994	.49(.50)		
동아리 활동 여부	아니오=0, 예=1	1,381	.33(.47)		
독서량	독서량	973	2.38(2.77)		
미래직업 구체적 계획 여부		655	.75(.44)		
미래직업 계획 실천 여부	아니오=0, 예=1	488	.86(.34)		
수능 언어영역 등급		786	4.79(2.18)		
수능 수리영역 등급	1등급~9등급	742	4.85(2.08)		
수능 외국어영역 등급		781	4.87(2.21)		

3. 분석방법

후기 청소년 취업선호도의 종단적 변화 양상 혹은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전이 분석(LTA)을 실시하였다. 우선 7차년도와 9차년도의 취업선호도에 따른 잠재계층을 각각 도출한 후,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하여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의 전이 확률을 확인하였다. 또한 9차년도 취업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기법의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취업선호도의 잠재전이분석을 위해 Mplus

8.00(Muthén & Muthén, 1998-2018)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 버전 3.4.4에서 R 패키지 party 1.3-1 버전(Hothorn, Hornik & Zeileis, 2006)의 ctree 함수를 활용하였다. ctree 함수는 다중검정을 고려한 보정유의확률을 사용하기에 독립변수의 측정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신혜정, 2016), 유의수준을 이용하여 과적합성 문제를 해결하므로 별도로 가지치기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신혜정, 이윤동, 이은경, 2016).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자료를 분석용(training) 자료 70%(981명)와 검증용(test) 자료 30%(400명)로 배분하여 교차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의 분류정확도를 제시하였다. 기초통계 분석의 경우 SPSS 24.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잠재계층 분류

가. 잠재계층 수 결정

잠재전이분석(LTA)을 실시하기 전 측정시기별 취업선호도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2계층에서 5계층까지 1계층씩 증가시키면서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작을수록, 분류의 질인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하며, LRMT가 유의하다면 증가시킨 모형이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

7차년도 결과를 살펴보면, AIC, BIC, SABIC는 계층이 증가할수록 작아지고 있으며, Entropy는 3계층에서 가장 높고, LRMT가 4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IC, BIC, SABIC 값이 가장 많이 낮아지고, Entropy가 가장 높으며, LRMT가 유의한 3계층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9차년도의 경우에도 3계층일 때 2계층에 비해 AIC, BIC, SABIC가 많이 낮아졌으며, Entropy도 가장 높고, 4계층 이후로는 LRMT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3계층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즉, 본 연구는 모형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7차년도와 9차년도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각각 3개, 3개로 결정하였다.

표 2

측정시기별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비교

($n=1,381$)

측정 시기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7차 년도	AIC	23477.782	22809.444	22621.846	22470.141
	BIC	23650.390	23070.972	22972.294	22909.509
	SABIC	23545.562	22912.142	22759.461	22642.674
	Entropy	.736	.779	.771	.737
	LMRT	1933.096***	696.670***	219.810	184.206*
	1계층(%)	675(48.9%)	253(18.3%)	134(9.7%)	190(19.8%)
	2계층(%)	706(51.1%)	696(50.4%)	433(31.4%)	343(24.8%)
	3계층(%)		432(31.3%)	191(13.8%)	223(16.1%)
	4계층(%)			623(45.1%)	357(25.9%)
	5계층(%)				268(19.4%)
	AIC	23351.550	22628.984	22407.197	22187.601
	BIC	23524.158	22890.512	22757.645	22626.969
9차 년도	SABIC	23419.330	22731.682	22544.812	22360.134
	Entropy	.770	.787	.787	.755
	LMRT	2006.587***	750.460***	253.723	249.929
	1계층(%)	797(57.7%)	304(22.0%)	150(10.9%)	126(9.1%)
	2계층(%)	584(42.3%)	730(52.9%)	685(49.6%)	232(16.8%)
	3계층(%)		347(25.1%)	204(14.8%)	415(30.1%)
	4계층(%)			342(24.8%)	386(28.0%)
	5계층(%)				222(16.1%)

* $p < .05$, *** $p < .001$

나. 7차년도 취업선호도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7차년도 취업선호도의 잠재계층 수를 3개로 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3개 잠재계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2를 제시하였으며, 각 잠재계층 특성에 따라 박연복(2017)과 봉초운, 정윤희(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계층을 명명하였다. 또한 잠재계층별 취업선호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잠재계층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별 특성을 보면, 계층 1은 16개 취업선호도 지표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대부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소임금에 대한 응답 수준이 평균 이상이며, 수도권과 도시권 직장, 사회적 인정, 학벌/학력수준, 정규직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회피가 매우 높은 집단으로, 이 계층을 ‘이상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정규직, 주5일 근무, 통근가능권, 근무시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대기업/외국계, 서울/강남권 직장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적인 선호를 보이는 계층 1에 비해 현실적인 근무환경과 상황을 중시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계층 2를 ‘환경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16개의 취업선호도 지표에서 모두 낮은 수준의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뚜렷한 조건과 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였기에 이 계층을 ‘취업탐색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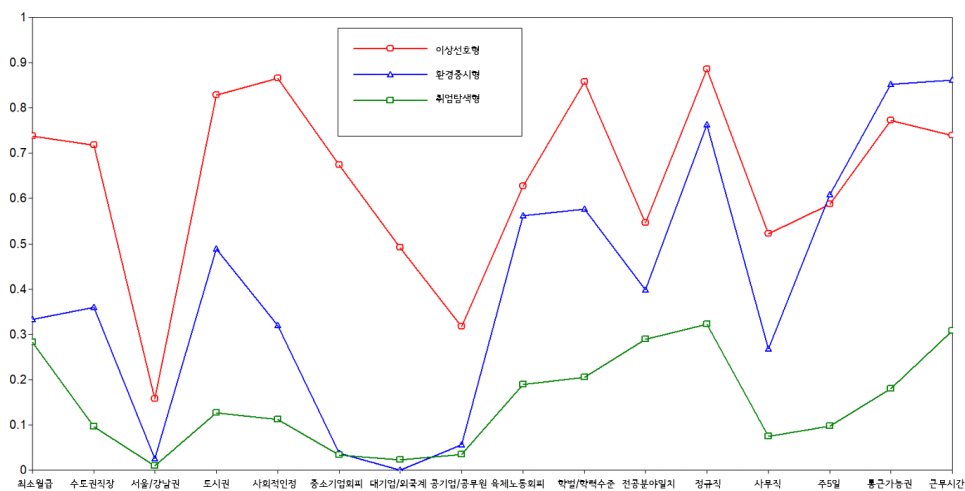


그림 2. 7차년도 취업선호도의 잠재계층 형태

표 3

7차년도 잠재계층별 취업선호도 수준

	계층1 이상선호형 ($n_1=253$)	계층2 환경중시형 ($n_2=696$)	계층3 취업탐색형 ($n_3=432$)	F	df	사후 검증 (Tamhane T2)
	$M(SD)$	$M(SD)$	$M(SD)$			
최소월급	.755(.431)	.332(.471)	.292(.455)	95.282***	2	3,2<1
수도권	.734(.443)	.366(.482)	.090(.289)	185.598***	2	3<2<1
서울강남권	.170(.376)	.026(.159)	.007(.083)	59.072***	2	3<2<1
도시권	.838(.369)	.504(.500)	.111(.315)	246.119***	2	3<2<1
사회적 인정	.884(.321)	.328(.470)	.113(.317)	294.099***	2	3<2<1
중소기업 회피	.736(.442)	.032(.175)	.037(.189)	812.943***	2	3,2<1
대기업/외국계	.530(.500)	.000(.000)	.023(.151)	531.270***	2	2<3<1
공기업/공무원	.345(.476)	.055(.228)	.032(.177)	119.696***	2	3,2<1
육체적노동 회피	.644(.480)	.555(.497)	.192(.394)	106.546***	2	3<2<1
학벌·학력 적합도	.866(.342)	.586(.493)	.197(.398)	202.754***	2	3<2<1
전공분야 일치	.530(.500)	.406(.492)	.292(.455)	19.979***	2	3<2<1
정규직	.893(.309)	.773(.419)	.306(.461)	220.932***	2	3<2<1
사무직	.524(.500)	.268(.443)	.083(.277)	92.017***	2	3<2<1
주 5일 근무	.597(.492)	.614(.487)	.079(.270)	224.446***	2	3<2,1
통근가능권	.758(.429)	.870(.336)	.153(.360)	543.023***	2	3<1<2
근무시간	.773(.443)	.869(.337)	.291(.455)	282.863***	2	3<1<2

*** $p<.001$

다. 9차년도 취업선호도에 따른 잠재계층 유형

9차년도 취업선호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한 3개 잠재계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출된 잠재계층 유형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또한 9차년도에서도 잠재계층별 취업선호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계층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잠재계층별 특성을 보면, 계층 1은 대부분의 취업선호도 지표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임금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수도권과 도시권 직장, 사회적 인정, 학벌/학력수준, 정규직 등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회피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7차년도와 계층 1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므로 ‘이상선호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정규직, 주5일 근무, 통근가능권, 근무시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대기업/외국계, 서울/강남권 직장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적인 선호를 보이는 계층 1에 비해 현실적인 근무환경과 상황을 중시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7차년도의 계층 2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므로 ‘환경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다른 취업조건보다는 정규직과 근무환경을 선호하긴 하지만 16개의 취업선호도 지표에서 모두 계층 1, 2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취업에 대한 뚜렷한 조건과 선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이 계층을 ‘취업탐색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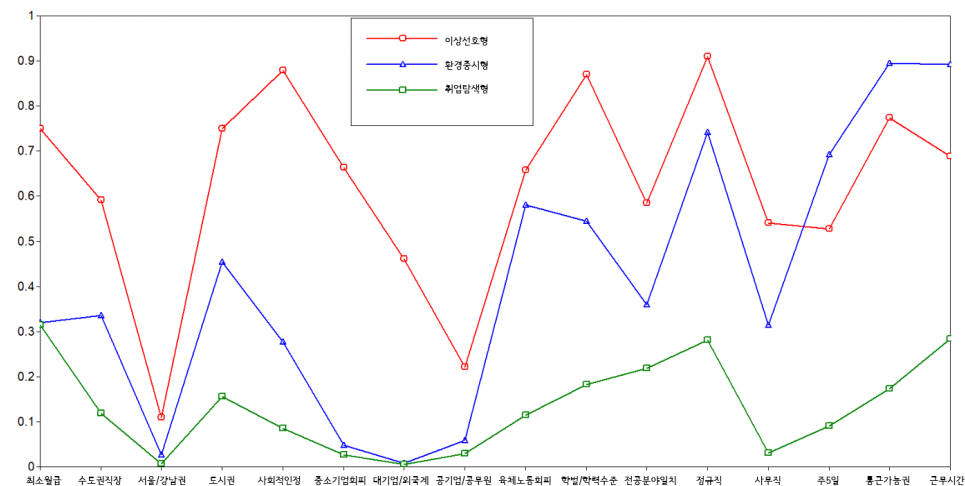


그림 3. 9차년도 취업선호도의 잠재계층 형태

표 4

9차년도 잠재계층별 취업선호도 수준

	계층1 이상선호형 ($n_1=304$)	계층2 환경중시형 ($n_2=730$)	계층3 취업탐색형 ($n_3=347$)	F	df	사후 검증 (Tamhane T2)
	$M(SD)$	$M(SD)$	$M(SD)$			
최소월급	.770(.422)	.316(.465)	.326(.469)	115.077	2	3,2<1
수도권	.609(.489)	.337(.473)	.110(.313)	102.912	2	3<2<1
서울강남권	.112(.316)	.028(.164)	.006(.076)	27.898	2	3<2<1
도시권	.769(.422)	.454(.498)	.150(.358)	152.755	2	3<2<1
사회적 인정	.914(.280)	.277(.448)	.081(.273)	441.181	2	3<2<1
중소기업 회피	.709(.455)	.044(.206)	.029(.168)	704.722	2	3,2<1
대기업/외국계	.488(.501)	.008(.091)	.006(.076)	447.351	2	3,2<1
공기업/공무원	.234(.424)	.057(.231)	.029(.168)	56.118	2	3,2<1
육체적노동 회피	.662(.474)	.574(.495)	.121(.327)	148.303	2	3<2<1
학벌·학력 적합도	.877(.328)	.545(.498)	.185(.389)	201.587	2	3<2<1
전공분야 일치	.589(.493)	.361(.481)	.222(.416)	50.595	2	3<2<1
정규직	.918(.275)	.744(.437)	.271(.445)	232.624	2	3<2<1
사무직	.540(.499)	.320(.467)	.029(.168)	121.915	2	3<2<1
주 5일 근무	.508(.501)	.700(.459)	.075(.264)	249.434	2	3<1<2
통근가능권	.768(.423)	.904(.295)	.141(.349)	600.909	2	3<1<2
근무시간	.672(.470)	.904(.295)	.254(.436)	348.458	2	3<1<2

*** $p<.001$

2. 취업선호도의 잠재전이 양상

측정시기별 잠재계층을 구분한 후, 7차년도에서 9차년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이되는지 탐색하기 위해 잠재전이 분석(LTA)을 실시하였다. 표 5를 보면 7차년도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은 대부분 9차년도

에도 같은 잠재계층으로 유지(stayer)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7차년도에 ‘환경중시형’에 속한 경우 9차년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중시형’에 유지될 확률이 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7차년도에 ‘환경중시형’에 속한 경우 9차년도에 ‘취업탐색형’으로 변화(mover)될 확률이 8.2%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차년도에 ‘이상선호형’에 속한 후기 청소년의 경우 9차년도에도 ‘이상선호형’에 유지될 확률이 58.3%로 가장 높았지만, 9차년도에 ‘환경중시형’으로 변화될 확률이 30.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년도에 ‘취업탐색형’에 속한 후기 청소년은 9차년도에 ‘취업탐색형(74.4%)’, ‘환경중시형(13.9%)’, ‘이상선호형(11.7%)’ 순으로 속할 확률이 높았다.

표 5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의 전이 양상

(단위: %)

		9차년도		
		이상선호형	환경중시형	취업탐색형
7차년도	이상선호형	58.3	30.2	11.5
	환경중시형	11.8	80.1	8.2
	취업탐색형	11.7	13.9	74.4

3. 취업선호도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을 구분한 결과를 토대로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잠재계층 영향요인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영향요인은 수능 외국어영역 등급, 성별,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에서의 외국어영역 등급에 따라 의사결정나무 가지가 달라지며, 수능 외국어영역 등급이 2등급보다 같거나 높을 경우, 즉 수능 외국어 등급이 1, 2등급으로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2번 노드로 통하게 된다. 2번 노드는 취업선호도 잠재계층 중 대부분의 취업선호도가 높은 수준인 ‘이상선호형(계층1)’의 비율이 가장 높은 노드이다.

반면 수능 외국어영역 등급이 3등급~9등급인 경우, 즉 외국어영역 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의사결정나무 가지가 달라진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노드가 달라지며,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비교적 낮은 경우 5번 노드로,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6번 노드에 속하게 된다. 5번 노드와 6번 노드는 현실적인 근무환경 등을 중시하는 ‘환경중시형(계층2)’의 비율이 높은 노드이나, 노드 5에 비해 노드 6은 ‘취업탐색형(계층3)’의 비율이 낮고 ‘이상선호형(계층1)’의 비율이 높다. 수능 외국어영역 등급이 낮고, 남학생인 경우에는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노드가 달라진다. 남학생이면서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 8번 노드에 속하게 되며,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9번 노드에 속하게 된다. 8번 노드는 ‘환경중시형(계층2)’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상선호형(계층1)’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다른 노드에 비해 ‘취업탐색형(계층3)’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9번 노드는 3개의 잠재계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9번 노드의 경우 8번 노드와 비교해 ‘이상선호형(계층1)’의 비율이 비교적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의 분류정확도는 약 57%였으며, 검증용 자료의 분류정확도는 약 5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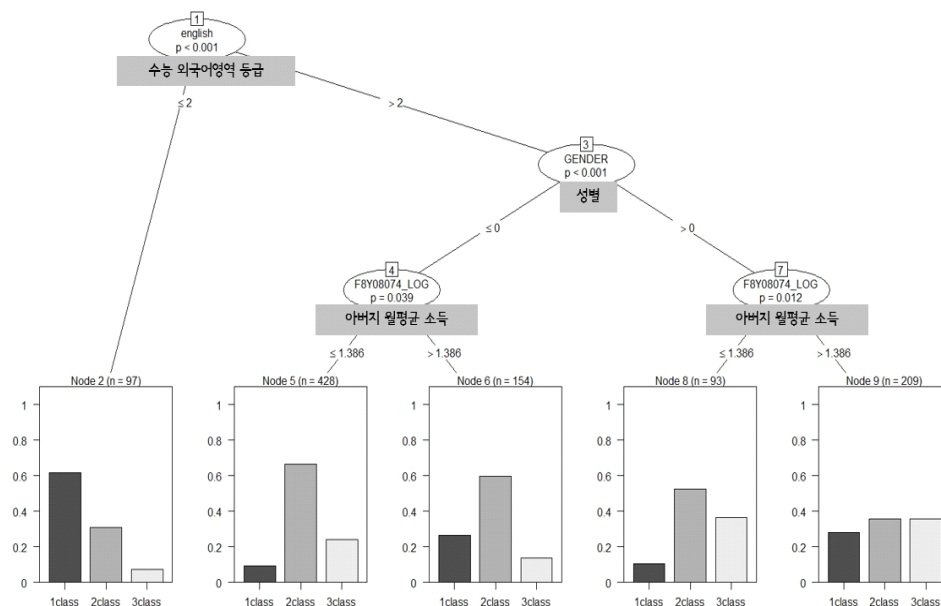


그림 4. 9차년도 취업선호도 잠재계층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의 7차년도와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잠재전이분석(LTA)을 실시하여 후기 청소년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의 종단적 변화 양상 혹은 안정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여 9차년도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분석(LCA)을 통해 7차년도와 9차년도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을 분류한 결과, 7차년도와 9차년도 모두 각각 3개의 이질적인 잠재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측정시기별 각 집단에 속한 비율을 달랐으나 취업선호도 형태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7차년도와 9차년도 모두 동일하게 잠재계층별 취업선호도 형태에 따라 ‘이상선호형(계층1)’, ‘환경중시형(계층2)’, ‘취업탐색형(계층3)’으로 명명하였다. 7차년도와 9차년도 모두 ‘환경중시형(계층2)’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근무환경(주 5일 근무, 통근가능권, 근무시간)이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질적인 잠재계층에 따라 취업에 대한 선호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의 선호에 따른 적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잠재전이분석(LTA)을 통해 7차년도와 9차년도 취업선호도 잠재계층 간 종단적 전이 확률을 산출한 결과, 7차년도에 속한 집단이 9차년도에도 유지(stayer)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선호도가 변화(mover)하는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유홍준 외, 2016)를 지지한다. 이처럼 취업선호도는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선호도 변화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취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까지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진로 탐색의 중요성은 중, 고등학교만의 과제가 아닌 대학교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이어지며, 대학교에서도 지속적인 직업 탐색의 기회 및 취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는 중요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후기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은 취업선호도 형성 및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업선호 및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고 이후의 직업선택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유홍준 외, 2016). 특히 성적에 맞춘 대학, 전공 선택으로 인해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 등은 취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잠재전이분석 결과에서 7차년도에 ‘이상선호형’에 속한 후기 청소년의 경우 비교적 높은 확률로 9차년도에 ‘환경중시형’으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생, 취업준비생 등이 많아지는 9차년도에는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취업난, 구직실패 등 취업의 높은 벽을 마주하며 취업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이행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변화로 이어져 이상적인 취업에 대해 꿈꾸기 보다는 취업 자체에 목적을 두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투입한 변수 중 수능 외국어영역 등급, 성별,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9차년도 취업선호도 잠재계층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성별의 영향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유홍준 외, 2016; 이석재, 1989; Heckert et al., 2002), 수능 등급과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 또한 취업선호도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박연복, 201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다양한 요인들을 투입했음에도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수능 외국어영역 등급이 높은 경우, 이상적인 취업 선호를 보이는 ‘이상선호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노드에 속했다. 수능 성적, 즉 학업 수준에서의 차이는 대학 진학 단계에서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정, 대기업/외국계, 학벌/학력 수준 일치, 정규직, 높은 임금 등 이상적인 취업에 대한 기대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높은 교육열로부터 생겨난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후기 청소년의 너무 높은 취업준비열은 오히려 구직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송영주, 이연우, 2017), 후기 청소년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취업에 대한 조건이나 외적인 가치에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김정숙, 2006).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와 관련해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취업선호와 적성 등 내부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높은 청년실업과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자구책이 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아버지 월평균 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속하는 노드가 달라지긴 하나, 성별에 따라 속한 노드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남학생이 속한 노드의 경우, 여학생이 속한 노드에 비해 취업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보이지 않는 ‘취업탐색형’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박연복(201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취업에 대한 선호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취업선호도 차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 경우에 속하는 노드는 이상선호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버지 월평균 소득과 같이 가정배경 요인이 이상적인 취업에 대한 선호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들의 노력과는 별개인 영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를 특정시점을 위주로 분석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에 대한 이질적인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종단적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취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통계적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일부 영향요인만을 한정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변인을 분석에 포함하여 취업선호도 영향요인을 탐색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취업선호도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에만 제한된 결과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 연구와 같은 변인이 취업선호도 영향요인으로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변인을 분석에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사결정나무분석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이 있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선호도에 대한 풍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20대인 후기 청소년의 경우 대학이나 군입대 등으로 인해 취업선호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연구 대상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취업선호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의 첫 취업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상을 반영하여(유홍준 외, 2016), 후속연구에서는 24세 이후의 취업선호도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정숙 (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김혜진, 오호영 (2016).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 패널 분석. **노동경제논집**, 39(3), 1-32.
- 박연복 (2017). 대학생의 취업선호도 유형 분류 및 개인 변인의 영향력 분석. **직업 능력개발연구**, 20(3), 1-27.
- 봉초운, 정운화 (2017). 이중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청년 근로자의 취업선호도와 직장 만족도의 관계 및 직장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12회 한국 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98-422.
- 신명호, 이영리, 홍세희 (2016). 4년제 대학생의 취업선호도에 따른 잠재집단분석과 취업소요기간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9(2), 173-201.
- 신혜정 (2016). **의사결정 분류나무를 위한 다양한 R 패키지들에 대한 비교 분석**.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정, 이윤동, 이은경 (2016). 임상자료를 이용한 나무구조 분류모형의 성능 비교.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1(1), 135-146. doi:10.210332/jhis.20 16.41.1.135
- 오계택, 박은선 (2012). 청년층 취업선호도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제10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37-152.
- 유홍준, 박은선, 오계택, 김월화 (2016). 청년층의 취업선호도 변화와 영향 요인. **직업 교육연구**, 35(1), 1-19.
- 이석재 (1989).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선호와 가치. **교육학연구**, 27(1), 135-145.
- 이창식, 정미나, 김윤정 (2012). 중·고등학생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의 예측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3(1), 31-55.
- 임옥진 (2012). 대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학논총**, 33(2), 19-49.
- 임희진, 유제민 (2007).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연구보고서 07-R0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원섭 (2004). 대학생의 노동시장 준비 행동 변화에 대한 탐색. **직업교육연구**, 23(1), 103-118.
- 최을, 이왕원 (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한국사회학**, 49(5), 1-44.

-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2.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 Heckert, T. M., Droste, H. E., Farmer, G. W., Adams, P. J., Bradley, J. C., & Bonness, B. M. (2002). Effect of gender and work experience on importance of job characteristics when considering job offers. *College Student Journal*, 36(3), 344-355.
- Hothorn, T., Hornik, K., & Zeileis, A. (2006). Unbiased recursive partitioning: A conditional inference framework. *Journal of Computational and Graphical statistics*, 15(3), 651-674. doi:10.1198/106186006X133933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8). *Mplus User's Guide* (8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Poole, E. D., & Mark R. Pogrebin. (1988).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to remain in policing: A study of women officers. *Journal of Police Science & Administration*, 16(1), 49-55.
- Quinlan, J. R. (1986). Induction of decision trees. *Machine learning*, 1(1), 81-106.

ABSTRACT

A study on changes and influential factors of post-adolescents' job preferences: The application of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decision tree analysis

Park, Soyoung* · Chung, Hyew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change trajectories of the job preferences of post-adolescents and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atent class of job preferences. In order to do this,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decision tree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7th wave(22years old) and 9th wave(24years old) collected by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I.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atent class analysis at 7th and 9th waves revealed that job preferenc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classes namely, ideal preference type, environment-oriented type, and job search type. Seco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latent classes at 7th wave were transferred to the same classes at the 9th wave. Third, the decision tree analysis revealed that English achievement level, gender, and a father's monthly income were the main influential factor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job preference, latent transition analysis, decision tree analysis,
post-adolescent

투고일: 2018. 12. 3, 심사일: 2019. 2. 8, 심사완료일: 2019. 2. 27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